



손에 잡힐듯한 남해안 섬 4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중문관광단지 매입 계획 없던일 되나

이 대통령 “헐값 안 돼”...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도, 한국관광공사에 “매각 추진여부 통보해 달라” 요청
사장 1년 10개월 공석... 후임 임명 후 입장 결정될 듯

제주특별자치도의 중문관광단지 매입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 중문관광단지를 소유한 한국관광공사에 공문을 보내 단지 매각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아예 매각 의사를 철회할지 결정해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지난달 11일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매각이 필요한 정부 자산이라도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다만 매각을 중단할 정부 자산 범위에 중문관광단지와 같은 공기업 자산도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정부 자산은 국유지처럼 국유재산을 뜻한다.

도 관계자는 “우리로서 중문관광단지도 (이 대통령이 지시한) 매각 중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공사 측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아직까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주요 업무에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공사 사장이

1년 10개월째 공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은 대통령의 중단 지시가 있기 전에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분양이 끝난 중문관광단지 내 부동산을 제외한 중문골프장 등 토지 156만7334㎡와 건물 1만5353㎡를 매각하기로 하고 2023년 7월 제주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양측의 실무협상은 2023년 12월 1회, 2024년 1회 등 두차례에 그쳤다. 올해에는 단 한차례도 실무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매각 금액을 미리 추산하기 위해 탁상 감정(현황 조사없이 서류만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까지 마쳤지만, 공사 사장의 부재로 협상은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협상 기한은 오는 2026년 12월로, 이 때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매수는 무산된다.

이 대통령이 공공자산 매각 중단 이유로 ‘헐값’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제주도로선 부담이다. 경기 침체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제주도는 어떻게든 매수 가격을 낮춰야 지갑을 열 수 있다.

2009년과 2014년 중문관광단지 매각이 추진될 때마다 제주도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재원이 부족하거나 매매 가격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결렬됐다. 2014년 협상 당시 공사 측은 평가액대로 1500억원 수준을 매각가로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공시지가의 60~70%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 사장이 공석이어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최근 후임 공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 사장이 임명되면 단지 매각 보류 또는 철회 등 공사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기상청, 2025년 9~11월 기후특성 분석

“열대야 예사”... 이젠 가을도 덥다

평균기온 21.1℃ 기록
지난해부터 20℃ 넘어

제주지역 가을철 기온이 지난해 역대 1위에 기록한데 이어 올가을은 2위 자리를 차지했다. 10월에도 열대야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을철 무더위가 최근 기후변화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가을철(9~11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 결과 올가을 제주지역의 평균기온은 21.1℃로, 지난해(21.2℃)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가을철 제주도 평균기온이 20℃를 넘은 것은 지난해부터다.

10월까지도 고온이 이어지면서 6일 제주(북부) 지역에서 관측 이래

처음으로 ‘10월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귀포(남부) 지점에서는 10월에만 6일과 13일에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이는 이들 지점 모두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이며, 특히 서귀포의 열대야일수는 79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다.

11월 제주도 평균기온도 14.5℃로, 평년보다 1℃가량 높았다.

제주기상청은 “9월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와 남쪽 저기압 영향으로 잦은 비와 고온이 나타났고, 10월 까지 고온이 지속됐다”며 “이후 11월에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과 맑은 날씨를 보이는 등 가을철 안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감정가 150억대 리조트가 고작 45억에...

제주 경매 ‘찬바람’... 낙찰률·낙찰가율 전국 최저

감정가 150억원대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주변 리조트 숙박시설이 45억원대의 가격에 낙찰됐다.

지지옥선이 4일 발표한 ‘11월 지 지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경매물건 734건 중 15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0.4%를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율은 45.5%로 전국 평균 61.9%보다 낮은 최저 수준을 보였다. 그나마 낙찰률은 경남-충북-세종에 이어 14위권으로 최하위는 면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의 경우 170건 중 3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0.6%로, 낙찰가율은 57.0%로 나타났다. 낙찰률이나 낙찰가율 모두 전국 평균 27.8%~74.8%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토지도 390건 중 66건만 낙찰돼 낙찰률 16.9%, 낙찰가율 44.2%로 역시 전국 평균(19.3%~47.3%)을 밑돌았다.

반면 업무·사업시설은 164건 중 46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28.0%(전국평균 22.4%), 낙찰가율 42.3%(전국평균 53.3%)로 낙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14건의 경매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83.4%의 낙찰가율을 보이며 9월 75.5%로 저점을 찍은 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경매물건 중 눈에 띄는 물건은 서귀포시 법원동에 위치한 모 리조트 건물로 감정가가 150억여원이었지만 4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매가가 37억여원으로 떨어졌고 5차 경매에서 4명이 응찰해 당초 감정가의 29.2% 수준인 45억여원에 낙찰됐다.

주거시설 중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모 아파트가 감정가 2억5800만원의 92.2%인 2억3700만원에 낙찰되면서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경찰, 제주 해안경계 감시 강화... 4면 / 교육청, 교사 사망사건 조사결과 발표... 5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이 작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2025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으로, 국민 “박준혁, 최정수, 라보미, 김가현”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성평등가족부

딤페이크는 갈아 끼울 수 있는게 아닙니다

성적 딤페이크 영상물은 “범죄”입니다

이 작품은 생성형 AI Chat GPT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